

Highlight #35: 예술이 다루는 모든 것

스페인, 터키, 벨기에 그리고 미국 아트 씬의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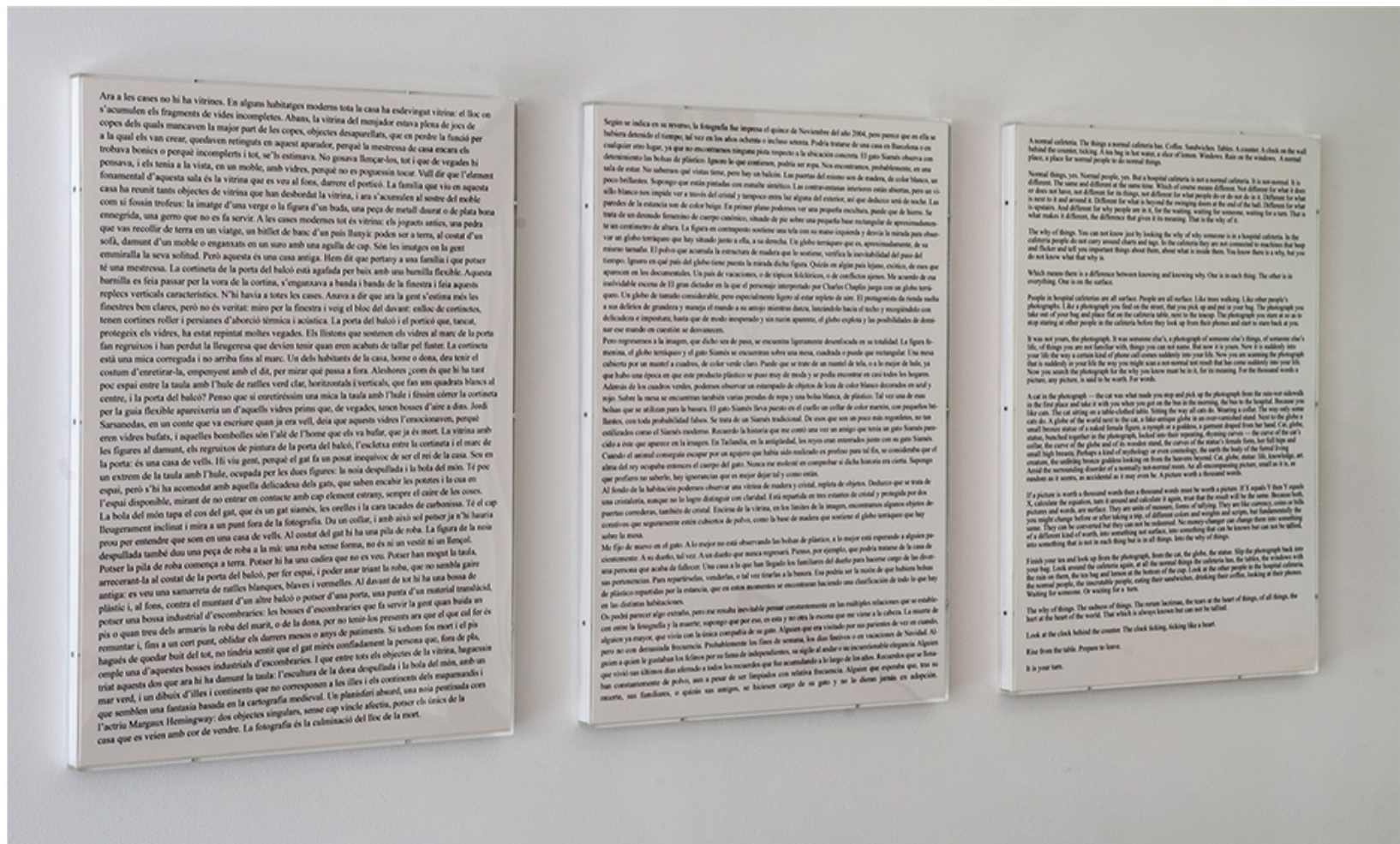
스페인, 바르셀로나 <Ignasi Aballi: Infinite Sequence>

2016.7.1~10.2_호안 미로 재단(Fundació Joan Miró)

이그나시 아발리(Ignasi Aballi)가 지금껏 선보인 작품을 망라해 총 40여 점을 공개하는 전시는 마치 회고전 같으면서도 동시에 신작을 가미해 그가 앞으로 나아갈 예술적 행보를 가늠케 합니다.

미니 회고전답게 전시는 작가가 흥미로워했던 모든 것을 집약시켜 놓았습니다. 작품 <Infinite Sequence>는 작가 본인의 작품뿐 아니라, 평소 영화와 오디오 비주얼 테크닉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사실을 시사하며, 멀티스크린 비디오 설치 작품인 <Time as Inactivity>는 시간과 시간의 패러독스에 대한 아발리의 탐구력을 선보입니다.

또 다른 비디오 작업 <Repainting Miro>는 시리즈 작업 중 하나로 ‘색’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가 하면 <A Thousand Words>는 묘사 과정과 수많은 언어로 같은 이미지를 설명하는 세 명의 다른 사람을 그리면서 동음이의어에 대해 연구해 이를 통해 작가는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서로 다른 언어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폭발할듯한 호기심으로 폭넓은 영역을 탐구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A Thousand Words> 2016

Digital print on paper Three pieces, 70x50cm each

Courtesy of the artist

터키, 이스탄불 <Not All That Falls Has Wings>

2016.6.9~9.18_아터(Arter)

이번 전시는 중력, 진중함에 대한 개념과 연관 지어 ‘하강’이란 의미를 탐구합니다. 참여 작가들은 하강 행위가 다양한 관점을 지닐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바스 안 아더(Bas Jan Ader), 필리다 바로우(Phyllida Barlow), 스프리앵 가이얌르(Cyprien Gaillard), 라이언 갠더(Ryan Gander), 미카일 카리키스 & 유리엘 올로(Mikhail Karikis & Uriel Orlow), 보이드(VOID) 그리고 앤 웬젤(Anne Wenzel) 등 총 7명(팀)의 작가가 정처 없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예상하지 못한 것과 평범한 것 모두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들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예술가들이 어떻게 ‘하강’ 또는 ‘중력’을 다루는지 관람객이 그 해답을 찾도록 돕습니다.

그중 발로의 멀티레이어 풍경은 중력과 감정 불안의 육체적 힘을 강조하며, 카리키스 & 올로는 비디오 설치작업에 폐광의 소리를 덧입힘으로써 관람객들을 지하세계로 이끍니다. 전시된 모든 설치와 비디오 작업을 통해, 작가들은 상승과 하강 사이에 발생하는 밸런스에 집중합니다. 또 인간의 성취를 위한 개인적 삶부터 사회적 코스까지 우리 주변 세계에서 ‘몰락’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고찰합니다.



Phyllida Barlow Installation view of <Phyllida Barlow. dock> Duveen Commission, Tate Britain, London, England, 2014

Courtesy of Hauser & Wirth and the artist Photo: Alex Delfanne

벨기에, 루벤 <Aglaia Konrad_From A to K>

2016.4.29~9.18_M-뮤지엄 루벤(M-Museum Leuven)

아글라이아 콘라드(Aglaia Konrad)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을 사진으로 아카이브 합니다. 그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캡처하는 것이야말로 사진의 중요한 역할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상파울루, 카이로, 베이징, 다카르 그리고 시카고 등 도시에 세워진 독특한 생김새의 빌딩들을 사진에 담아, 도시가 발전하는 방식 그리고 조각, 건축 그리고 사진의 경계를 발견하는데 작가는 지난 20년간 몰두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탈리아 가르다 호(Lake Garda)의 빌라를 촬영한 필름 작업과 ‘Zweimal Belichtet’ 연작이 포함된 사진, 설치작업을 통해 빌딩과 도시화를 이야기하는 그의 화술로 점철됩니다. 건축에 매혹된 그의 시각자료 모음이기도 한 이번 전시는 유니크한 건축과 이름 모를 도시 공간에 왜 매료됐는지에 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한편 사진, 필름 작업 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아티스트 북을 함께 배치한 전시는 평소 책을 공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여기며 작업 전반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는 작가의 특성을 엿보게 합니다.



<Demolition City> © 2016 KK

미국, 워싱턴 D.C <Bettina Pousttchi_Double Monuments>

2016.6.9~10.2_필립스 컬렉션(the Phillips Collection)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베티나 포스트쉬(Bettina Pousttchi)는 사진, 비디오, 조각 등을 통해 역사와 건축을 탐구합니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Double Monuments for Flavin and Tatlin'(2010-2016) 연작은 거리의 바리게이트, 금속 바리어 재료들을 조각 형태로 변형시킨 것으로 5-12피트의 거대 규모를 자랑하는 다섯 개의 'Double Monuments'로 이뤄져 있습니다. 나선형 수직 타워이자 네온 라이트 튜브 형태를 결합한 작품은 러시아 구성주의 조각가이자 건축가인 블라디미르 타를린(Vladimir Tatlin)의 1920년대 작업과 미국 미니멀리즘 작가 댄 플래빈(Dan Flavin)의 1960년대 작업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한편, 다른 작품들 또한 나움 가보(Naum Gabo)의 <Gabo's Linear Structure in Space No.1>(1943)와 베러니스 에보트(Berenice Abbott), 루이스 파우러(Louis Faurer), 알프레도 아이젠슈타트(Alfred Eisenstaedt)의 20세기 초반 흑백사진 시리즈를 포함한 갤러리 소장품들과 한 쌍을 이룹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가보가 메탈, 유리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재료로 공간, 라인, 움직임을 강하게 표현한 투명조각을 제작했다면 포스트쉬는 네온과 파우더 처리된 오브제로 조각, 건축적 설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장르와 방식을 강조한 전시는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 with ARTINPOST



Berenice Abbott <New York at Night> 1931, printed 1975

Gelatin silver enlargement print 15 5/8×10 1/2in Gift of the Phillips Contemporaries, 2003 The Phillips Collection, Washington, DC